

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위한 현안 및 과제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하여,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 및 발표했다. 주 내용은 다수사망사고 보고체계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 개선, 국가 환자안전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대책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 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 감염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 대부분이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오랫동안 병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면역체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철저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번 호는 「중환자실 감염관리 방안」을 정책현안 주제로 선정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삼 교수는 ‘안전한 중환자실을 만들기 위하여 -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언’을 통해 중환자실 현황과 위험요인에 대한 고찰, 중환자실의 감염관리를 위한 제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는 ‘중환자실 근무 현장 이야기’를 통해 병원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생생한 목소리로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숙제들을 풀어내주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 중환자간호팀의 조희주 간호사는 ‘중환자실 간호사 일기’라는 주제로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의 경험담을 풀어냈으며 독자들에게 중환자실 현장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조정실 자원정책연구팀의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국내 중환자실 관리 현황 및 감염관리 개선 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중환자실 관리현황과 향후 개선안, 고려 사항 등을 소개했으며, 평가관리실 평가관리부 박인기 실장은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현황 및 평가지표 개선 방안’으로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현황과 평가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